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7.(금)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27일(금)부터		
담당부서	도시환경전문위원	**작성자**	박일용 전문위원(044-300-7471) 이 호 주무관(044-300-7473)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교통예산 1,420억원 심사…시민 안전 · 재정 건전성 집중 점검

-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 교통국 소관 예산안 점검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며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점검했다.

교통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3,534만 1천원 증액한 314억 6,285만 5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3억 50만 2천원 증액한 1,420억 9,801만 7천원으로 편성·제출됐다.

이날 위원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심의 횡단보도 안전시설 확충, 공영자전거 교체 및 자전거 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는 현장 수요와 안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버스노선 운영지원과 유류비 보전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연간 소요액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자체 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정책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종료 과정에서의 시민 소통과 행정의 책임성 또한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던 사업을 별도의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하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다소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책을 시작할 때만큼이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안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30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12월 1일까지 예비심사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